

쏟아진 크나큰 업적은 길이 빛나리

광명성절의 민족사적의의를 되새겨봅니다

뜻깊은 광명성절을 맞는 환희로 가슴은 뜨겁게 달아오릅니다.

우리 겨레는 태양절과 함께 광명성절을 민족사에 아로새긴 참으로 복된 민족입니다.

광명성절, 그 민족사적의의를 되새겨볼수록 위대한 장군님의 거룩한 혁명생애가 더욱 숭엄히 안겨오고 장군님의 성스러운 력사를 세월이 무궁토록 호르케 하여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감사의 정을 금할수 없습니다.

2월의 봄을 맞아 겨레의 마음은 백두산으로 끌없이 달려갑니다.

멀리 이역에서 정일봉기술의 백두산 밀영고향집을 그려보니 력사의 그날에 항일선열들이 터치던 환호성이 메아리칩니다.

《겨레여 백두산에 광명성 솟았다》, 《2천만 백의민족 대동운 백두광명성 출현》, 《조선아 민족아 높이 자랑하라 아침에 밝은 내 나라에 광명성 솟아너를 반긴다》…

72년전 민족의 대동운이 열리던 환희가 파도쳐옵니다.

력사의 2월 16일과 더불어 팔도강산에는 조선의 미래가 백두광명성의 성덕으로 통성할것이라는 전설이 파다하게 퍼져갔습니다. 오죽하면 일제가 《하늘이 절지한 옥동자가 백두령지 삼자연에서 출생하였다는 선전이 민심을 크게 혼란시켰다.》고 비명을 지르면서 백두산으로 향한 2천만동포의 축원과 넋원을 막아보려고 치안력량까지 동원시켰겠습니까.

백두광명성호칭에는 민족재생의 은인으로 우리르던 김일성장군님의 위업을 이으실 또 한분의 천출위인을 맞이한 겨레의 감격과 기대가 담겨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망국의 비운속에 살아온 우리 민족이기에 생명의 필수요소인 빛－광명에 대한 갈망은 남달랐습니다.

겨레의 이 소망이 향한 곳은 백두산이었습니다.

민족의 운명이 칠성관에 올랐던 주난의 그 시기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주체의 기치높이 백두광야에서 항일대전의 총성을 울리시였으니 그때부터 조종의 성산 백두산은 겨레의 가슴속에 민족구원의 등대로 우뚝 솟아올랐던것입니다.

피어낸 항일의 혈전속에 바야흐로 조국해방의 려명이 밝아오던 1940년대 초 민족의 령산은 백의민족에게 다시금 행운을 선사하였습니다. 신비의 정기를 뿜어 또 한분의 백두산위인, 백두광명성을 만들어올렸습니다.

광명성절, 그 고귀한 부름에는 민족의 기대와 념원을 안고 탄생하시여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새 력사를 펼치신 조 민족단일의 령성변역을 위한 든든한 담보를 마련해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에 대한 온 겨레의 다함없는 청송이 비껴있습니다.

《백두광명성 빛나는 조선의 미래 찬

란하다》고 격정을 터치며 항일선열들이 예언한것처럼 광명성, 그 찬연한 빛발과 더불어 얼마나 전설같은 기적을 펼쳐며 사회주의조선의 현대력사가 수놓아졌습니까.

위인이 갖추어야 할 품격과 자질을 최고의 경지에서 체현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아래 조국땅우에 자랑스럽게 펼쳐진 거창한 창조와 변혁의 년대기들을 더듬어볼수록 가슴뜨겁습니다.

비범한 사상리론적예지를 지니신 위대한 장군님을 모시여 우리 조국은 정치사상강국으로 찬란한 빛을 뿌릴수 있었습니다.

타국에 전파할만 한 자기의 철학사조 하나 가져본적 없는 우리 민족이 오늘 자기의 철학, 자기의 사상리념으로 력사를 주도하며 자주와 정의의 길로 세계를 향도하고있으니 민족적공지와 자부심을 끌이 없습니다.

회세의 선군령장이신 김정일장군님을 모시여 그 어떤 강제도 범접 못하는 군사강국의 기상을 떨치며 행성의 부러움을 모은 공화국의 력사는 또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지난 세월 망국의 실음을 통탄하며 이역땅으로 휘부러졌던 우리 해외동포들이 가슴을 짝퍼고 《나는 조선사람이다!》라고 긍지높이 웨치며 사회주의조국을 찾아오는 민족사의 일대 전환은 선군으로 강위력한 공화국의 위용을 떠나 생각할수 없습니다.

로동당시대의 일대 통성기, 주체예술의 대화원을 펼친 20세기 문예부흥기, 령도자의 두리에 천만군민이 굳게 뭉친 일심단결의 위력…

참으로 정치, 경제, 군사, 문화 등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비약과 기적을 창조하며 그 존엄과 기상을 떨쳐온 주체조선의 력사의 갈피마다에는 광명성의 빛발이 눈부신 광채를 뿌리고있습니다. 온 겨레, 온 인류가 광명성의 성스러운 부름과 더불어 위대한 장군님의 비범한 정치실력에 감탄을 금치 못해하였으며 장군님께서 시대와 력사발전에 쌓아올리신 그 불멸의 공적에 매혹되고 경탄하였습니다.

이 시각 저의 가슴속에는 감회도 새로운 주체81(1992)년 2월 16일을 맞으며 몸소 붓을 드시고 《광명성찬가》를 쓰시던 어버이수령님의 모습이 숭엄히 되새겨집니다.

이미전부터 이날을 맞으며 위대한 장군님께 무엇을 선물했으면 좋을가하고 마음씨오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손수 붓을 드시고 김일성민족사에 대를 두고 길이 빛날 《광명성찬가》를 한자한자 써내려가시었습니다.

백두산마루에 정일봉 솟아있고 소백수 푸른 물은 굽이쳐 흐르누나 광명성 탄생하여 어느덧 신통인가 문무총요 겸비하니 모두다 우리르네 만민이 칭송하는 그 마음 한결같이 우렁찬 환호소리 하늘땅을 뒤흔든다

그때 수령님께서 자신께서 한평생 혁명을 하여오지만 오늘처럼 보람을 느껴본적이 없다고 하시며 그것은 김정일동지의 령도밑에 우리 혁명이 반드시 승리한다는것을 확신하였기 때문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었다고 합니다.

어버이수령님께서 보내오신 뜻깊은 송시를 받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수령님께서 몸소 지으신 이 시는 자신에게 주신 최대의 선물이라고 하시며 송시의 구절구절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앞으로 혁명에 더 충실하실 결의를 다지시었습니다.

백두광명성으로 인민에게 오신 때로부터 늘 인민과 함께 계신분, 자신을 다 바치시여 부강조국건설의 새 력사를 아로새겨오신 장군님이시기에 조국에서 일어나는 경이적인 사변을 대할때마다 우리 해외동포들이 언제나 깊은 감동속에 돌이켜보곤 하는것이 그이의 인민사랑의 자욱입니다.

우리 동포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언제인가 자신의 고결한 삶을 뿌리에 비겨 말씀하신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크나큰 감명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이께서는 일군들에게 늘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우리는 안락을 바라지 말자, 강성국가를 위하여 함께 일하자, 함께 뿌리가 되자.

이것이 바로 위대한 장군님의 인생관이었습니다. 억센 뿌리가 거목을 떠받들고있듯이 조국과 인민을 위해 강그리 바치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변물류의 로고와 헌신이 있어 공화국에서는 세인을 놀래우는 눈부신 성과와 세기적변혁이 일어났던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끝까지 책임지시려는 숭고한 사명감, 인민에 대한 절세위인의 그 열화와 같은 사랑은 공화국으로 하여금 고난의 행군의 엄혹한 시험도 이겨내고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일대 전성기도 펼쳐게 한 힘의 원천이었습니다.

그 나날 《폭잡과 꿩피밥》, 《삼복칠강행군》, 《심야강행군》 등 얼마나 많은 혁명일화들이 집없이 전해져만사람의 심금을 울려주었습니까.

광명성 찬란한 빛발아래 분별의 검은구름이 무겁게 드리웠던 삼천리강토우에 통일의 서광이 비쳐오고 6.15시대가 펼쳐져 온 겨레는 민족의 화해와 단합의 진맛을 느끼며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활로를 기운차게 열어올수 있었습니다.

참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불세출의 영웅서사시를 수놓아오시며 시대와 력사앞에 불멸할 업적을 쌓아올리신 우리 장군님이십니다.

하기에 공화국인민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품속에서 만복을 누려온 나날을 돌이켜보며 영원히 그 품속에 안겨살기를 념원하였습니다. 이것은 공화국인민들이 아닌 온 겨레의 한결같은 소망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겨레의 이 소망을 풀어주신분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이십니다.

광명성절, 그 성스러운 부름에는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끝없이 빛내어나가려는 한없이 고결한 충정과 불라는 신념과 의지가 어렸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탄생일을 광명성절로 제정한 소식을 접하던 때의 일이 어제런듯 되살아납니다.

2월 16일은 우리 겨레에게 대를 이어 태양복을 누리는 한없는 긍지로 마냥 가슴설레이게 한 민족최대의 경사의 날입니다.

해마다 이날을 맞을 때면 평양으로 끌없이 달려가는 마음을 억제할수 없어 조국의 하늘을 바라보고 또 바라보며 홀모의 마음을 안고 조국으로 향하던 우리 해외동포들이었습니다. 2월 16일은 우리 동포들이 사는 지역 어디서나 성대한 경축무대들을 펼치고 장군님 우리러 춤추고 노래부르던 격정의 나날들을 어찌 잊을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늘같이 우리르던 위대한 장군님을 너무도 뜻밖에 잃고 피눈물을 흘리던 일이 꼭 두달전일인데 뜻깊은 2월명절을 맞이하게 된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지고 장군님에 대한 그리움은 더욱 갈마들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 위대한 장군님의 탄생일을 광명성절로 제정하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특별보도가 발표되었습니다.

우리 겨레의 가슴속에 너무도 친근하게, 한없이 숭엄하게 새겨진 광명성 그 부름과 더불어 세세년년 위대한 장군님의 탄생일을 뜻깊게 경축하게 되었으니 세상에 경사면 이보다 더 큰 경사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위대한 장군님께서 환생하시여 조국과 인민을 이끄시는것만 같았고 태양의 미소를 지으시며 어서올 오라고 우리를 평양으로 부르시느것만 같았습니다.

그 특별보도에서 온 겨레는 어버이장군님을 영원토록 높이 모시고 장군님의 성스러운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길이 빛내이시려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절대불변의 신념과 의지를 온넋으로 절감하였습니다.

충정의 최고화신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모시여 우리 조국은 태양절, 광명성절을 가진 세상유일의 태양조국으로, 우리 민족은 대를 이어 절세의 위인을 모신 복받은 태양민족으로 무궁토록 빛을 뿌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장군님께 경축공연을 보여드리는 심정으로 그리움의 노래무대를 펼쳐고 피눈물의 바다에서 온 겨레를 일떠세워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 감사의 큰절을 드리고 또 드리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과 꼭 같으니 또 한분의 천출위인을 높이 모시여 민족최대의 명절인 2월 16일을 광명성절로 경축하는 크나큰 행운을 받아안은 우리들은 선군조선의 해외공민된 긍지를 더

욱 깊이 간직하고 조국에 애국의 마음을 퍼줄기처럼 더 든든히 잇게 되었습니다.

해마다 광명성절이면 어버이를 그리는 자식의 심정으로 서둘러 조국으로 향하는 우리들입니다.

광명성절, 그 성스러운 부름은 우리 조국의 부강변역속에 끝없이 흐르는 위대한 장군님의 력사에 대한 감동의 화폭입니다.

수령영생은 단순한 구호가 아닙니다. 조국의 천만군민 아니 우리 온 겨레의 신념이며 실천입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사상과 위업을 빛나게 계승하시고 장군님의 한없이 뜨거운 사랑과 정을 그대로 부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의 손길아래 장군님의 력사는 오늘도 뜨겁게 흐르고있습니다.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가 백승의 기치로 나뉘기고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자주길, 선군의 길, 사회주의길을 따라 끝바로 나아가는 공화국의 현실에 세계가 매혹과 경탄을 금치 못해하고있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위대한 장군님의 념원을 꽃피우시며 공화국을 인민의 지상락원으로, 천하제일강국으로 빛내여가시는 화폭은 또 얼마나 감동깊은것입니까.

지난해 조국을 다녀온 동포들은 한결같이 인민사랑의 창조물들이 우후죽순처럼 솟아올랐다고 찬탄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김일성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과 은하과학자리대,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과 인민군력사묘, 문수물놀이장과 미림승마구락부, 옥류아동병원과 류경구강병원… 게다가 세계굴지의 마시령스키장이 개장되어 세인의 주목을 끌고있습니다.

아직은 어려운 조국땅에서 세계일류급의 창조물들을 보게 되니 인민의 모든 꿈이 이루어지고 사회주의부귀영화를 누리는 그 모습을 앞당겨 보는것만 같습니다.

지금도 우리 동포들이 감동에 젖어 위우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올해초 인민군 부대에서 새로 건설한 수산물맹동시설을 돌아보신 이야기입니다. 그날 원수님께서서는 자신께서 오늘 여기에 찾아온것은 전국의 육아원, 애육원, 초동 및 중등학원, 양로원들에 대한 물고기보장가능성을 토론하기 위해서이라고, 모든 원아들이 부모없는 실음을 모르고 부러움없이 혁명의 계승자, 혁명의 물간으로 무럭무럭 자라게 하자는것이 당의 확고한 결심이고 의지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었다고 합니다. 그러시며 이들에게 물고기를 하루에 300g씩 꼭꼭 먹이려면 년간 그 수량이 얼마나 되겠는가를 몸소 수첩에 계산하기 해보시고 그 사업을 인민군대에 맡겨주시었다고 합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얼마전에는 몸소 평양시의 애육원과 육아원을 찾아 원아들에게 친어버이사랑을 부어주

시여 또다시 만민을 감동시키시였습니다.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이인위원의 숭고한 뜻이 어떻게 현실로 꽃겨나는가를 전하는 전설같은 화폭이었습니다.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소외계층으로 사람들의 관심밖의 대상인 이들의 생활문제가 나라의 큰 중대사로 되는 하나의 사실을 통해서도 우리 동포들은 올해에 끊임없이 이어질 절세위인의 인민사랑의 로정도를 봅니다.

우리 동포들은 모진 광풍을 맞받아 힘차게 나뉘기는 선군의 기치를 보며 힘과 용기를 얻고 삽니다. 위대한 장군님 그대로 자주적존엄과 권리를 인민에게 줄수 있는 최고의 사랑으로 여기시고 최전방열점지역으로부터 파도사나운 섬초소 그 어디라없이 찾고찾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리르며 선군의 진리를 더 깊이 깨닫고있습니다.

일심단결과 불패의 군력에 새 세기 산업혁명을 더하면 사회주의강성국가라는 대명제를 내놓으시고 김정일에 국주의를 온 겨레가 소중히 간직해야 할 애국주의의 표본이라 하신 말씀을 통하여 경애하는 원수님의 심중에 간직된 일념이 무엇인가를 알수 있습니다.

그것은 세계가 우리러보는 통일강국입니다. 그래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올해선년사에서 그렇듯 열렬히 호소하신것입니다. 우리 인민끼리의 림장을 확고히 견지하고 내외호전세력들의 대결과 전쟁책동을 절대로 허용하지 말며 북남관계개선의 분위기를 마련할때 대한 내용에는 겨레의 비극적운명에 종지부를 찍으시려는 그이의 애국애족의 결단이 담겨있습니다.

우리 동포들은 원수님의 신년사를 받아안고 저마다 흥분된 심정을 터쳤습니다.

온 겨레가 그가 누구든 과거를 불문하고 우리민족끼리리념따라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새 국면을 열자는 애국애족의 호소에 진심으로 화답할 때 북남관계는 개선되고 6.15시대의 벽찬 환희와 감격은 또다시 재현될것입니다.

참으로 위대한 계승의 력사가 줄기차 광명성절이 더욱 빛을 뿌립니다.

그렇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뜻을 받들어 공화국을 세계가 우리르른 사회주의강성국가로 빛내이시기 위해 로고와 실험을 다 바쳐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에 받들려 마련되어가는 창조적 열매는 광명성절에 드리는 영생축원의 꽃다발이 아니겠습니까.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계시여 온 겨레는 김일성친구, 김정일조선으로 영광받칠것이며 광명성절을 대양절과 더불어 민족최대의 명절로 무궁토록 길이 빛날것입니다.

(필자는 재중조선인총련합회 부의장임)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인 광명성절을 맞으며 제 18차 김정일화축전이 14일 평양에서 개막되었다.

축전장인 김일성화김정일화 전시판에는 《제18차 김정일화 축전》, 《광명성절경축》이라는 글발과 축전마크가 세워져있었으며 공화국기와 축전기발들이 게양되어있었다.

공화국의 밝은 앞날을 축복해주시며 환히 웃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의 영상이 축전장에 정중히 모셔져있었다.

축전장에는 무력기관, 성, 중앙기관들을 비롯한 많은 단위들과 인민군군인들, 각계층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이 정성껏 피운 불멸의 꽃들이 전시되었다.

총련중앙상임위원회와 해외동포들 그리고 주조 여러나라 외교대표부들과 국제기구대표부들, 외국의 친선 및 련대성단체들, 인사들, 화교들이 태양의 꽃들을 축전장에 내놓았다.

회세의 천출위인을 우리러 따르는 우리 인민과 진보적 인류의 열화같은 충정에 떠받들려 아름답게 피어난 수만상의 김정일화들과 갖가

제 18 차 김정일화축전 개막



지 진귀한 화조들로 축전장은 황홀경을 이루고있었다. 《김정일장군의 노래》주악으로 개막식이 시작되었다.

조선김일성화김정일화위원회 위원장이 개막사를 하였다.

연설자는 온 나라 천만군

민이 당의 전투적호소따라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비약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키며 선군조

선의 일대 번영기를 열어나가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민족최대의 명절인 광명성절을 맞으며 제18차 김정일화

축전을 진행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번 축전은 한평생을 조국의 강성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의 승리적전진을 위하여 바치신 위대한 김정일동지에 대한 우리 인민과 진보적인류의 그리움과 경보의 정에 떠받들려 펼쳐진 영생축원의 꽃축전이라고 강조하였다.

불멸의 꽃 김정일화는 자주시대 인류의 마음속에 피어난 위인칭송의 꽃으로서 우리 인민들에게 회세의 선군태양을 모신 무한한 민족적공지와 자부심을 안겨주고있다고 말하였다.

연설자는 이번 축전이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올해 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승리의 신심과 락관에 넘쳐장엄한 총진군길에 과감히 펼쳐나선 우리 군대와 인민의 투쟁을 힘있게 고무추동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축전개막을 선언하였다.

개막식은 《불멸의 꽃 축전가》주악으로 끝났다.

개막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불멸의 꽃들로 황홀경을 이룬 축전장을 깊은 감동속에 돌아보았다.

본사기자

이 세상 천차만별의 인간들중에 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나역시 어릴적꿈이 원에 사였을 정도로 꽃에 대한 애착이 강하다. 고국에 대한 그리움도 나의 집 대한 작은 화원에서 달래곤 하였다.

그후 고국을 다녀온 동포들로부터 만민의 축복속에 피어난 불멸의 꽃 김정일화가 널리 퍼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후 그 신비의 꽃에 대한 그리움은 날로 더해만 갔다.

뜻깊은 광명성절을 앞두고 조국방문이 성사된 이번 기회에 풍치수려한 대동강기슭에 자리잡은 김정일화축전장에 직접 와서 김정일화를 보는 순간 나는 넋을 잃었다.

열정의 생기를 뿜는 붉은색의 매혹적인 꽃잎, 청신하고 억센 느낌을 주는 푸른 잎사귀… 이 세상에 알려진 모든 꽃들을 무색케 하는 아름다움과 우아함을 모두 갖춘 꽃이었다.

단순한 자연의 꽃이 아니었다. 온 겨레와 진보적인

류가 열화같이 흠모하는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에 대한 그리움과 매혹의 결정체였다.

더욱 감동적인것은 재배과정지 힘들다는 김정일화를 세계 각지에 사는 동포들이 저저마다 정성껏 피워 이번 축전장에 보내온 것이었다.

사는 곳은 서로 달라도 절세위인에 대한 존경과 흠모의 마음은 한결같은을 그들이 보내온 활짝 핀 김정일화들을 보면서 심장으로 절감하였다.

그 꽃들을 보면서 나도 김정일화를 직접 피워보고싶은 충동을 금할수 없었다. 그래서 원에서적들을 구하여 김정일화재배방법을 터득하기 시작하였다. 알뿌리를 어떻게 자래우며 생육조건에 알맞는 온습도와 빛은 어떻게 보정해야 하는가 등 구체적인 재배방법을 알아두었다.

래년에는 어떻게 하나 내가 직접 키운 불멸의 꽃 김정일화를 가지고 축전에 참가할 결심이다.

재가나다동포 리수려